現 힐링은 진통제 … 관계론적 명상 필요

오용석 교수, 불교학연구 54호 기고 논문서 주장

힐링담론 內 명상, 본말전도 활용
"모든 건 내 탓" 자기계발만 강조
불합리한 사회구조 극복할 수 없어

관계론적 불교명상, 현 시대에 필요
"無我 바탕 명상, 우릴 연대케 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사회는 지독한 경쟁사회다. 이에 지친 사람들을 위해 나타난 현상이 바로 '힐링'이다. 소위 2010년대 초중반을 흔들었던 힐링문화의 최대 수혜자는 불교였다. 스님들의 힐링 서적은 불티나게 팔렸고, 불교의 명상법 등이 대중매체에 소개되면서 '명상 붐'이 생겨났다. 하지만 이 같은 힐링담론은 일종의 진통제에 지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오용석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는 불교학연구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불교학연구〉제54호에 기고한 논문 '경쟁 사회에 타나난 힐링 담론 고찰'을 통해 현재의 힐링담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했다.

오 교수는 한국사회의 힐링담론은 무한경쟁시대에 나타난 부산물임을 상기시키며, 이에 대한 본질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압박으로 인한 고통을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는데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문제를 '나의 탓', '마음의 문제'로 환원시켜 객관적 상황에 눈을 뜨거나 구조적 모순을 자각하지 못하게 한다. 이는 몸과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 진통제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면서 "진통제는 상처를 근원적으로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아픔을 눌러 놓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힐링에는 문제를 대면하지 않고 회피하는 나약함과 비겁함 그리고 억압이 동반된다"면서 "진정한 힐링담론은 불합리한 사회 구조까지 고민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진단했다.

또한, 오 교수는 힐링담론 안에서 소비되는 명상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명상의 임상적 효과만을 지나치게 부풀려 장점만을 강조하거나 부작용에 대한 이해없이 일종의 치료로 활용되는 것은 명상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라는 것이다.

오 교수는 "모든 문제를 자신에게 돌리고 다시 자기계발에 몰두하게 만드는 말초적인 조언에 길들여질수록 우리의 시각은 좁아질 수 밖에 없다"면서 "불교의 '관계론적 명상'에서 대안적 힐링담론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가 주장하는 '관계론적 명상'은 타인과의 문제와 불합리한 사회 구조를 바로 보고, 행동하는 힘을 갖는 명상이다.

특히 오 교수는 '무아(無我)적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한 명상을 추구할 것을 제언했다. 그는 "무아적 통찰에 기반한 명상은 자비로 귀결되며 이는 타자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회복시킨다"면서 "명상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관계하고 있는 사회 구조를 더 좋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아를 바탕으로 한 명상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고 연대하게 한다"면서 "힐링담론의 연장선에서 이해되는 '유심론적 명상'이 아닌 '관계론적 명상'은 현재 우리 삶과 사회에서 강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광연구원·출라롱콘大 교류 협정 체결

4월 17일 체결식… "양국 불교발전 이바지할 연구 추진"

불광연구원과 태국 출라롱콘대 부설 태국학연구소가 상호 학술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불광연구원 이사장 지홍 스님은 4월 17일 조계종 포교원장실에서 수치트라 총스티뜨와따나 태국 출라롱콘대 태국학연구소장을 비롯해 4명의 소속 교수의 예방을 받고 학술교류를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학술교류 협정은 지난해 12월 불광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제6회 전법학술상에서 태국학연구소 소속 프램 소운사뭇 교수가 수상자로 선정된 것이 계기가 됐다.

불광연구원은 "향후 두 기관은 전법학·불교학 등 한국과 태국 양국의 불교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 주제로 상호 학술교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태국학연구소 일행은 잠실 불광사를 참배하고 주지 본공스님과 환담했다. 신성민 기자



불광연구원은 출라롱콘대 태국학연구소와 4월 17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천년고찰 청련사 창건사·성보 연구 가치 높다"

양주 청련사 4월 14일 창건 1191주년 세미나

청련사, 禪宗 사찰로 창건
양주 이전, 천년 이을 불사
불화·불상, 역사적 의미 커



청련사 이사장 상진 스님이 4월 14일 열린 학술세미나서 총평을 하고 있다.

양주 청련사의 창건 역사와 문화재들의 학술적 가치를 조명하는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양주 청련사는 4월 14일 경내 대적광전에서 '양주 청련사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창건 1191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청련사의 창건과 중창 과정부터 불상과 불화 등을 연구한 주제 논문들이 발표됐다.

이종수 순천대 교수는 '청련사의 역사적 변천과 위상' 연구 논문을 통해 청련사 신라창건설과 조선창건설을 분석했다. 이 교수는 "신라창건설에 창건연대가 흥덕왕 2년인 827년인데 이는 중국으로부터 선(禪)이 전래된 시기이며, 청련사가 선종 사찰로 창건됐음을 알 수 있다"면서 "하왕십리 종남산에 사찰이 건립된 것은 신라시대 유행했던 보살주처 신앙과 연관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조선시대 무학대사 창건설에 대해서는 무학대사가 한양 지덕을 비보하는 사찰로 청련사를 지정하면서 종남산 서쪽 계곡에 있던 사찰을 동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생겨났다고 이 교수는 분석했다.

이후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까지 7번의 중창이 있었고, 2010년 8번째 중창에서는 사찰을 양주로 이전하는 대작불사가 이뤄졌다. 8번째 중창불사에 대해 이 교수는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기 위한 중창이었다"고 평가하며 "청련사의 역사적 변천을 이해하는 것은 과거 선학들이 피땀으로 이뤄온 전통적 가치관을 오늘에 맞게 재해석하는 작업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유근자 동국대 겸임교수는 청련사에 소장된 조선 후기 불교조각들의 양식과 문화재적 가치 등을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다.

청련사 대웅전의 아미타삼존상(1670년 作)·원통보전의 관음보살상(1651년 作)을 고찰한 유 교수는 "불화 화기 등을 살펴보면 상궁들이 주요 시주자로 참여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청련사는 왕실과 관련이 깊은 사찰로 추정된다"면서 "특히 청련사의 아미타삼존상과 관음보살상은 17세기 불교조각 연구의 기준작으로 문화재 지정 가치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유경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는 청련사에 현전하고 있는 13건의 불화의 특징과 의미를 살폈다. 그는 "청련사 불화는 19세기 말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청련사의 역사를 고증하는 중요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당시 불화의 도상·양식, 후원자와 화승을 총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며 "이는 불화 연구자 뿐만 아니라 역사학계·불교계에 큰 보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청련사의 전해지는 전통의례문화와 어산 상진 스님의 범음성계보 등을 살핀 논문들도 발표됐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 태고종 원로회의 의장 덕화 스님을 비롯해 양주사암연합회장 혜성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청련사 이사장 상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청련사의 불상과 불화들은 우리 청련사의 소중한 자산이자 국가와 불교계의 훌륭한 문화유산"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문화적 가치가 재조명돼 길이 보전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용수보살의 '중론' 제대로 배우려면

중관학당, 4기 수강생 모집

용수 스님의 〈중론〉을 배울 수 있는 원전 강좌가 열린다.

(사)고려대장경연구소 산하 중관학당은 오는 6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4기 중론 강좌를 개최한다.

서울 종로 소재 불교여성개발원 1층 지혜실에서 열리는 이번 강좌의 강사로는 신상환 인도 타고르 대학 前 교수가 참여한다.

제4기 중관학당 강독 강좌는 인도 불교 철학의 특징과 용수의 〈중론〉 11~16품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인도 티베트 불교의 특징뿐만 아니라 〈중론〉의 산스크리트어 원문과 티베트역,한문역의 특징도 같이 다뤄질 예정이다.

강좌 참가비는 총 5강 12만원이며, 개별 강좌는 3만원. 30명만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문의 (010)8801-4037

신성민 기자

'중생 행복' 주제 학술대회 열린다

불교문예硏, 4월 27일 동방문화대학원대학서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불교문예연구소는 4월 27일 오후1시 동방문화대학원대학 호운관에서 '붓다의 행복을 넘어 중생의 행복으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평래 충남대 명예교수의 기조강연으로 시작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생 행복 구현 관련 연구 논문들이 발표된다.

주요 논문으로는 △박수호 중앙승가대 불교사회학부 교수의 '행복 사회의 가능성과 참여불교의 한계' △민순의 동국대 연구교수의 '자비행에 내포된 행복 메카니즘-공덕과 회향을 중심으로' △김재권 동국대 연구교수의 '불교의 기도는 행복을 불러오는가' △이병욱 고려대 철학과 강의교수의 '수행자의 깨달음과 범부의 관계' 등이 발표된다.

논평자로는 박재현 동명대 문화학부 교수, 정영식 고려대장경연구소 연구원, 윤용복 종교사회문화연구소장, 정승안 동명대 자율전공학부 교수가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www.yangjikukak.com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